

제주도 방언 '시다'의 문법화 현상*

문 순 덕**

차례

- I. 서론
- II. 명사구에 쓰이는 '서'의 문법 기능
- III. 동사구에 쓰이는 '시'의 문법 기능
- IV. 결론

I. 서론

중양어 '있다'에 해당하는 중세 국어로는 '잇다, 이시다'와 '시다'가 있어서 명사구에 쓰인 '서'의 기원을 여기에 두고 많이 논의되어 왔다. 제주 방언에도 '시다'(잇다)와 '이시다'(잇다) 양형¹⁾이 공존한다. 필자는 제주 방언에서의 쓰임을 통해서 명사구에 붙는 경우, 본동사로 쓰이는 경우, 보조동사로 쓰이는 경우 등 여러 문법 기능이 있음을 알아보고자 한다. 명사구, 동사구에 붙는 '서'를 동일 기원, 동일 의미로 보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서'가 동사 '시다(有, 在)'에서 문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밝혀보고자 한다.

* 이 글은 <제주학 2/3호>(제주학연구소, 1998/1999)에 발표했던 것을 집고 보태어 쓴 것이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이시다'와 '시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잇다'와 '잇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실현된다.

II. 명사구에 쓰이는 '서'의 문법 기능

제주 방언 명사구에 쓰이는 '에서'는 '처소, 소재, 출발, 단체' 등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는데, '에(의, 예, 이)서'와 '서' 그리고 특이 형태인 '디서'의 쓰임을 통해서 '서'의 의미·통사 특성을 살펴보겠다.

보통 '에서'를 처소격 조사라 하는데, '에서'를 단일 형태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에'와 '서'를 분리해서 다른 형태소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물론 '에서'가 단일 형태소로 인식되지만 '에'와 '서'의 분리가 가능하며 이 때 '서'의 의미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주 방언 명사구에 쓰이는 '서'의 의미·통사 특성을 살펴보겠다.

1. 단체 주격 '에(의, 이)서', '서'의 기능

- (1) 가. ㅁ실에서 그 일을 시작해서.²⁾ (마을에서 그 일을 시작했다.)
 나. 나라의서 잘 알았 험저.³⁾ (나라에서 잘 알아서 하고 있다.)
 다. 관가이서 경 허렌 명령험저. (관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
 라. 정의선 문과 급제가 하영 낫수다.⁴⁾
 (정의에서는 문과 급제가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1)에서 '에(의, 이)서', '서'는 단체, 집단을 의미하는 명사와 결합해서

2) '시작해서'는 '시작하-아-시-어'로 분석되는데 자제한 것은 2장에서 논의하였다. 제주 방언에서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 선어말어미 '-암-/-엄-' 등은 이형태인데, 이 글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아-', '-암-'을 대표형으로 정했다.

3) '험저'는 '하-암-저'로 분석된다. '-저-/-주'는 제주 방언 종결어미이다. 이는 주로 1인칭 주어의 의지/의도를 나타낸다.

4) '낫수다'는 '나-앗-우-다'로 분석이 된다. 여기서 '-앗/엇-'은 과거시제 형태소이며, '-우-'는 상대존대 선어말어미이다. 선행 형태소가 개음절이면 '-우-'가, 폐음절 형태소이면 '-수-'가 결합된다(정승철 1994; 홍종립 1993; 현평효 1985 참조).

주격조사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에'는 기본 형태이며, '이, 의'는 '에'의 변이형태이다. 물론 처소격조사의 형태와 동일하다. '므실, 나라, 관가, 정의'는 [+장소, -유정, +집단]의 意味資質을 갖고 있다. (1가)의 '므실'에서 행위의 주체는 '마을 사람들'이 된다. (1나)의 '나라의서'는 한 나라의 관리자, 통치자, 나라의 책임자가 행위의 주체이다. (1다)에서 '관가이서'는 행위의 주체가 '관가'가 된다. (1라)에서 '정의선'은 '정의 마을 사람들 중에서'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에'는 생략되고 '서'만 쓰였다.

(1)에서 '에서'에는 '處所+人'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에서'에는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누군가가' 정도인 것이 감추어져 있다. '므실에서, 나라의서, 관가이서, 정의서'에는 동작의 공간적 영역이 내포되어 있다. 이때 서술어인 동작 동사와 호응한다.

- * (1') 가. 므실에 그 일을 시작해서.
- 나. 나라의 잘 알앙 햐저.
- 다. 관가이 경 후렌 명령헛저.

(1)에서 '서'를 분리하면 (1')처럼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에서'에 단체 주격의 문법 기능이 있음을 뜻한다.

단체 주격 표지 여부를 분명히 판단하기 위해서 '에서' 대신 주격조사 '이/가'로 대체해 보면 문장의 성립 여부를 알 수 있다.

- (1'') 가. 므실이 그 일을 시작해서.
- 나. 나라가 잘 알앙 햐저.
- 다. 관가가 경 후렌 명령헛저.
- 라. ?정의(마을)가 문과 급제가 하영 낫수다.

(1'')가 성립하는 것은 '에서'가 주격조사 '가'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1''라)는 '정의 마을'이 많이 배출한 주체라는 뜻에서 성립할 수 있다.

(1)에서 '에(이, 의)서', '서'가 주격으로 쓰일 때는 동작 동사가 서술어로 쓰인다. 따라서 '에+서'로 재분석한다면 형태소 '서'의 의미는 미약하나마 '존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에'는 공간적 영역 즉 장소(처소)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 이때의 '서'는 그것이 결합되는 명사구의 '상태대로 있음' 즉 현실적·구체적 존재를 요구한다. 따라서 '서'의 기원을 '시다'로 설정하고자 한다.

(2) 가. 둘이서 걸어감시나? (둘이서 걸어가느냐?)

나. 다섯이서 살아가게 하였주. (다섯이서 살아가게 하였다.)

다. 혼자서 살았저. (혼자서 살고 있다.)

(2)에서 인수사와 결합한 '서'는 주격의 기능을 나타내므로 주격조사 '가'로 바꾸어도 -둘이가, 다섯이가, 혼자가-의미는 같다. 여기서 '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서'가 결합됨으로써 인수사의 존재 의미가 강하게 느껴진다. 이때 서술어는 동작 동사이다. 상태 동사와 호응할 때에는 의미·통사 기능이 좀 다르다.

(2') 둘이 걸어감시나?

(2가)와 (2')를 비교해 보면 '서'가 없어도 의미에 그다지 차이점이 없다. 그러나 '둘이 간다'와 '둘이서 간다'를 비교해 보면 '둘이'에 비해서 '둘이서'가 수량의 정확성이 있으며 서술어의 동작이 이루어짐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둘이'가 존재하며 지속됨을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2')에 비해서 '서'가 통합된 (2)는 주어진 수량사만 존재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이다.

(3) 마을에서 이 경기를 주워했다.

(3)은 중앙어인데 문법 기능이 제주 방언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즉 '에서'로 표시되는 출발점 성분이 주어 성분과 일치하면 이 때의 '에서'는 주격표지 '가'로 바뀔 수 있으나 일치하지 않으면 주격조사 '가'로 바뀔 수 없다.

2. 처소격 '에(이, 의)서', '디서'의 기능

1) '에서'의 쓰임

(4) 가. 울래에 강 보라. (골목길에 가서 보아라.)

나. 가윈 그 소리에 ㄱ만이 샷저. (그 아이는 그 소리에 가만히 섰다.)

다. 저 사름은 지주에서 왔수과? (저 사람은 제주에서 왔습니까?)

라. 는 학교서 와시나? (너는 학교에서 왔느냐?)

(4가)에서 행위자는 숨겨진 주어이며 그 대상은 울래이다. '가다'란 이동 동사를 서술어로 취하는 '에'는 행위의 도달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가 향진 또는 도달의 의미가 있는 것은 서술어의 특성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4나)에서 동사구의 행위를 한정하는 '에'는 원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그 부르는 소리 때문에 동작이 멈춤'을 나타낸다.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상태 지속을 공간적 영역으로 본다면 '에' 역시 처소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에'는 중세 국어의 잔영이다.⁵⁾

(4다)의 '에서'도 '제주'라는 처소에서 출발했음을 의미한다. (4라)는 '에'가 생략되고 '서'만 연결된 경우인데 '서'대신 '로부터'를 대입해도

5) 중세 국어에서 처소격조사의 형태에는 '에/에/예'가 있었다. 양성모음 아래에서는 '에'가, 음성모음 아래에서는 '예'가, 'ㅣ'모음(반모음 포함) 아래에서는 '예'가 쓰였다. 처소격표지 '의, 예'는 중세 국어에서 쓰이던 형태로 지금까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역시 제주 방언에 나타나는 변이형태이다.

성립한다. 따라서 이 때의 ‘서’는 출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선행 명사가 처소를 나타내며 그 공간에서부터 밖으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물론 서술어는 동작 동사이어야 한다. (4다, 라)에서 ‘에서’가 출발의 의미가 있는 것은 서술어가 이동 동사인 ‘오다’와 호응하기 때문이다.

(4') 가. 올레에서 강 보라.

나. *가원 그 소리에서 7만이 샷저.

(4'가)는 ‘골목길에서 다시 어떤 장소로 이동하라’는 의미여서 문장이 성립한다. (4가)의 ‘올레에’에는 ‘올레까지’의 의미이다. (4'가)의 ‘올레에서’는 ‘올레에서부터’의 의미이다. 여기서 ‘에’와 ‘에서’의 의미 기능이 다를 수 있다. (4'나)는 ‘에서’의 선행 요소가 장소 명사가 아니어서 비문법적이 되고 있다.

(4)에서 ‘에’가 향진의 의미일 때에는 주로 이동 동사와 호응한다. ‘에서’ 역시 ‘출발’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이동 동사와 호응한다. 그러나 ‘에서’의 주 의미는 처소이며 이때에는 주로 비이동 동사(여기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어떤 동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 공간 동사를 뜻한다.)와 호응한다. ‘에서’가 동작의 영역을 나타내는 원인은 ‘서’의 특성에 기인한다. 동작이 일어나는 영역이란 동작을 할 주체나 동작의 대상이 될 객체가 소재할 공간이기 때문이다. 주체나 객체가 소재한 공간이란 바로 동작의 전제 조건일 수 있는 것이다. ‘에’와 ‘에서’는 처소(장소, 소재)를 나타내는 데 ‘서’가 ‘시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존재, 처소의 의미가 전제된 것이다.

중세 국어⁶⁾에서 ‘에서’의 쓰임을 살펴보면 (5)와 같다.

(5) 가. 지브 이실 저기. (석보 6:7)

6) 이 글에 인용된 중세 국어 문헌 자료는 석보상절(석보), 월인석보(월석), 두시언해(두언) 등이다.

나. 台衡人 자해 버리 떠더. (두언 23 : 17)

다. 紫門에서 사는 이룰 마츠리로소니. (두언 21 : 20)

라. 精舍 이르스불 제도 이 개야미 이에서 사더니. (석보 6 : 37)

(5)에서 '에'(의)와 '에서'는 무정물의 선행 명사를 요구하며 후행하는 서술어도 동작 동사임을 알 수 있다.

(5가)에서 “지뵈셔 이실 저귀”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셔’와 ‘이시다’의 의미가 같기 때문이다. (5나)에서 ‘땅에’를 ‘땅에서’로 치환해 보면 처소의 의미 대신 ‘출발’의 의미가 나타나며,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와 ‘에서’의 의미 영역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에’는 장소는 물론 귀착점을 뜻하며, ‘에서’는 처소 및 출발(유래)을 의미한다. (5다, 라)에서 “자문에, 이에”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서 처소를 의미하는 ‘에’에 ‘셔’가 연결되어서 상태 지속의 의미를 더해 주는 것 같다.

(6)에서 보면 ‘에서’가 명사 뒤에 결합되어 ‘출발’의 의미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6) 가. 입에서 그지없는 百千光明을 내시니 (월석 7 : 50)

나. 이 구스리 龍王 7 頭腦 入 소베서 니느니 (월석 8 : 11)

다. 菩薩 마하살 자해서 소사 나시니 돌히 (월석 18 : 2)

(6') 가. 입에서부터...

나. 속에서부터...

다. 땅에서부터...

(6), (6')에서 보면 ‘에서’에 ‘부터’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에서’가 출발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이며, 선행 명사는 ‘공간’(처소)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공간이든, 출발이든 정해진 어떤 지점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처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호응 가능한 서술어와 통합할

수 있어서이다. 따라서 제주 방언이든, 중세국어이든 ‘에’나 ‘에서’의 선택 기능은 선행 요소도 영향을 미치지만 후행 동사의 성격에 따름을 알 수 있다.

중양어에서 그 쓰임을 보면 (7)과 같다.

- (7) 가. 철수는 운동장에서 놀았다.
나. *철수는 운동장에 놀았다.

(7가)는 성립하는데 (7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처소(소재)를 나타내지만 서로 대체할 수 없음을 뜻한다. 즉 ‘에’와 ‘에서’의 의미 영역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에’가 소재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환경은 서술어로 ‘있-’이 쓰이는 문장이다. ‘에서’가 소재를 표시하는 환경은 서술 동사로 비이동 동사라 할 수 있는 ‘놀-, 먹-, 자-’ 등이 쓰이는 문장이다. 이것은 ‘에서’에 ‘시-(있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있-’과는 공기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처소와 관련된 형태로 대표적인 것은 ‘에’이며, ‘에’의 대표적 기능은 ‘목표’와 ‘소재’를 표시하는 기능이다. ‘에서’ 역시 처소와 관련된 형식으로 ‘소재’를 표시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처소격의 ‘에’와 ‘에서’는 서로 조건없이 대체될 수는 없다.

2) ‘이서’의 쓰임

- (8) 가. 아방은 바당이 나갔수다. (아버지는 바다에 나갔습니다.)
나. 어멍은 사돈침이 딸 보래 갔수다.
(어머니는 사돈집에 딸 보러 갔습니다.)
다. 가윈 두린 때 서모 실하이서 장성ㅎ엿수다.
(그 아이는 어릴 때 계모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라. 성제가 정지 구석에서 드투았저.
(형제가 부엌 구석에서 싸웠다.)

제주 방언에서 처소격조사 형태로 '에'와 '이'가 쓰이지만 그 선택 제한을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다. (8가)에서 '이'는 바다로 향한다는 지향의 의미와 가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영역을 나타낸다. 즉 '이'는 처소(소제)를 기본 의미로 갖고 있다. 처소의 '이'는 서술어가 이동 동사인 '나가다'와 호응함을 알 수 있다. (8나)는 '사돈집'이라는 장소를 나타낸다. 여기서 '이'는 어머니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물론 이동 동사 '가다'와 호응하면서 '이'는 향진의 의미를 갖고 있다.

(8다)의 '이서'는 어릴 때 산 곳이 서모밀이라는 공간적 배경 즉 [+장소]의 의미자질을 지니며 '서모 밀에 있어서'처럼 존재의 의미 기능도 나타낸다. '실하'에 후행하는 '이서'는 공간적 위치를 드러내는 처소의 의미를 지닌다. (8라)에서 '이서'는 '다투는' 장소라는 공간적 영역을 나타낸다. 물론 '이서'의 선행 요소는 명사이다. '이서'가 동작이 발생하는 처소인 것은 동작 동사인 '드투다'와 호응하기 때문이다.

(8다, 라)에서 처소를 의미하는 '이'를 생략하고 '서'만이 쓰였을 때—실해서, 정지 구석서—도 의미는 동일하다. 이는 [+장소]의 의미자질을 표시하는 '이'에 그 존재의 의미가 강한 '서'가 결합되어야 '이서'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따라서 '서'의 기본 의미를 '시다'(있다)에 두고자 한다.

3) '의서'의 쓰임

(9) 가. 는 절간의 가서 무시거 배와시냐?

(너는 절에 가서 무엇을 배웠느냐?)

나. 어떻헌연 아침의 와서? (어떻게 해서 아침에 왔느냐?)

다. 앞의서 곶으라. (앞에서 말하라.)

라. 난 집의서 놀압수다. (나는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9가)에서 '의'는 행동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장소를 의미하며 행동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달점의 의미 기능을 갖는다. (9나)에서 '의'는 시간 명사와 쓰이면서 '아침'이라는 지정된 시간적 영역을 나타낸다. 물론 특정한 시간을 지정해 주면서 동작 동사와 호응하고 있다. (9가, 나)에서 '가다, 오다'인 이동 동사와 호응하는 것은 '의(에)'임을 알 수 있다.

(9다)에서 '의서'는 말하는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여기서도 처소의 '의서'는 동작 동사인 '걸다'와 호응하고 있다. (9라)에서 '의서'는 '-에 있으면서'로 해석되며 선행 명사가 장소를 나타낸다. 즉 집이라는 장소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여기서 '의서'는 동작 동사와 공기함을 알 수 있다. '의서'는 장소(소재)를 나타내지만 存在의 의미가 있는 것은 '서' 때문이라 생각된다.

(9)에서 '의'나 '의서'의 선행 요소는 명사임을 알 수 있으며, 처소나 향진의 의미 기능이 있는 것은 그러한 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동작 동사가 서술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4) '디서'의 쓰임

다음은 제주 방언의 특이 형태인 '디서'의 쓰임을 살펴보겠다.

- (10) 가. 난 굿디 멩기질 못헐저. (나는 가에 다니지를 못하고 있다.)
나. 가윈 밧디 갖저. (그 아이는 밧에 갔다.)
다. 가윈 밧디서 검질 멩저. (그 아이는 밧에서 김을 떼고 있다.)
라. 지봉 우티서 놀라. (지봉 위에서 놀라.)

(10)에서 보면 '디'나 '디서'의 선행 요소가 처소 명사임을 알 수 있다.

(10가)의 '디'는 이동의 의미를 포함한 [+장소]의 의미 자질을 지니며 동사구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디'는 선행 NP의 末子音이 /ㄷ/系이거나 동시에 원래 語末에 /h/을 지녔던 NP에만 연결되는 제약 조건을 가지면서⁷⁾ 처소격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디'는 제약된 분포를 보이지만 타 형태처럼 '서'가 연결되어서 장소와 출발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 (10나)에서 '디'는 '발이라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디'는 향진(도달점)의 의미를 나타낸다. (10가, 나)에서 '디'는 '다니다, 가다'라는 이동 동사와 공기하고 있다. 이는 '에'의 동사 특성과 같다.

(10다)의 '디서'는 선행 명사가 [+장소]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발이라는 지정된 공간 내에서 김을 매고 있다는 뜻이다. '발에'라는 공간적 의미 기능에 '서'가 연결되어서 [+장소], [+존재]의 의미 자질을 지닌다. 처소의 '디'에 형태소 '-서'가 연결된 '디서'는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발생하는 공간적인 장소와 존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0라)에서 '디서' 역시 '노는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디'가 아니고 '디서'가 선택된 것은 '놀다'인 비이동 동사의 특성 때문이다. 즉 (10다)의 '매다'와 마찬가지로 행위가 발생하는 공간이 필요한 동사이다.

(10)에 쓰인 '디'나 '디서'는 중앙어 '에', '에서'와 같은 의미·통사 기능을 갖는 제주 방언의 특이 형태이다.

명사구에 결합하는 '에서'는 기본적으로 처소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았으며, '에서'의 선행 요소는 처소 명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서'가 나타내는 단체 주격, 출발격, 처소(소재)격 기능 중에서 '에서'의 고유한 기능에 근접해 있는 것은 처소(소재)격표지라고 생각된다. '디서'는 [+장소]와 시간을 두고 머물러 있는 체류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 처소의 '디'에 형태소 '서'가 융합된 '디서'는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발

7) 강정희(1980), "제주방언의 처격 '-디'에 관한 일고찰", [방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78.

생하는 공간적인 장소와 존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에(디)서'가 동작 동사인 서술어와 공기하는 것은 주어진 처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며, 행동성이 있음을 뜻한다. 처소를 나타내는 '에(이, 의)', '디'와 '에(이, 의)서', '디서'의 통사 기능을 보면 선행 요소는 당연히 명사인데 두 형태가 각각 다르게 선택되고 있다. 이는 서술어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서술어인 동작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같은 처소를 나타내더라도 '에'가 쓰이니까, '에서'가 다르게 쓰이는 것이다. 여기서 '에'와 호응하는 동사는 주로 이동 동사이고, '에서'와 호응하는 동사는 비이동 동사이다. 따라서 처소격조사에는 '에'와 '에서'가 처음부터 공존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에'였는데 시다의 부사형인 '서'가 결합되어서 '에서'가 단일 형태소로 굳어졌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에서'를 재분석하면 '서'의 의미를 '시다'에 둘 수 있다.

III. 동사구에 쓰이는 '시-'의 문법 기능

앞에서는 주로 제주 방언 명사구와의 결합 관계를 통해서 단체 주격과 처소격조사의 한 형태인 '서'의 문법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동사구에 쓰인 '시-(시다)'의 제 특성을 살펴보고 나서 명사구에 쓰인 '서'와의 공통점을 밝혀보겠다. 즉 동사구에서 연결어미인 '-서-'와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갖고 있는 '-시-'가 '시다(이시다)'에서 문법화되었음을 보고자 한다. 동사구에 쓰이는 '-아둡(두)서-', '-암시-', '-아시-' 등을 단일 형태소로 볼 수도 있지만 활용어미는 재분석이 가능하므로 여기에서도 최대한 형태 분석해서 본형과 변형의 의미·통사 기능을 보고자 한다.

1. 연결어미로서 '-서'의 문법 기능

먼저 '이시다', '시다'가 주 기능인 동사로 쓰임을 보면 다음과 같다.

(11) 가. 가의 놀멍 이시냐? (그 아이 놀면서 있느냐?)

- 나. 가의 잇건 오랭햏라. (그 아이 있으면 오라고 햏라.)
 다. 느랑 이디 시라. (너는 여기에 있어라.)
 라. 집의 나 옷 싯저. (집에 내 옷이 있다.)

(11)에서 보면 '시다', '이시다'는 '존재 상태'와 '소유'의 의미가 있으며, 동사로서 서술어의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 방언인 경우, 중앙어의 영향을 더디게 받아서 지금도 '시다'와 '이시다'의 양형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본동사가 어떻게 어미로 문법화되었는지를 보겠다.

제주 방언의 연결어미 중에서 형태 '-서'와 결합한 연결어미의 형태로는 '-아둡(두)서', '-아서', '-명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주 방언 토박이 화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아둡(두)서'를 통해서 '-시-'의 의미와 문법 기능을 알아보고자 한다.

- (12) 가. 난 누어둡서 말 곺앗저. (나는 누워 있으면서 말을 했다.)
 나. 난 방이 앓아둡서 먹었저. (나는 방에 앉아 있으면서 먹었다.)
 다. 우린 무똥이 사두서 방안을 솔뻗저.
 (우리는 현관에 서서 방안을 살뻗었다.)
 라. ㄱ만히 곱아두서 가의가 일햏는 거 벵렛저.
 (가만히 숨어서 그 아이가 일하는 것을 보았다.)

(12가)는 화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행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둡서'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므로 계기적 나열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 따라서 선행절은 후행절보다 시제상 하나 앞선 상태이다. '-아둡서'는 '아 있으면서'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사구를 분석해 보면 '눅-어-두-ㄱ-시-어'인데, 여기서 '-ㄱ-'은 진행을 나타내며, '-시-'에는 보조동사 '있다'의 기능이 있다. (12나)는 화자가 방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먹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앉아들서’는 ‘앉-아-두-口-시-어’로 분석할 수 있다.

(12다)에서 ‘문 앞에 서 있는 상태(동작 완료)에서’ 후행절의 동작이 이어진다. ‘사두서’는 ‘사-(아)-두- \emptyset -시-어’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완료의 相 선어말어미 ‘-아-’는 생략(\emptyset)되었다. (12라)는 ‘숨어 있는 상태(동작 완료)에서 보니까’ 다음에 후행절이 발생한다. ‘곱-아-두- \emptyset -시-어’에서 완료의 相 선어말어미는 생략(\emptyset)되었다.

(12가, 나)에서 선어말어미 ‘-두-’와 ‘-시-’ 사이에 相 선어말어미 ‘-口-’이 쓰인다. 따라서 相 선어말어미의 위치는 ‘-시-’ 앞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암-’의 기능과 같다. 그래서 (12다, 라)에서도 완료 선어말어미 ‘-아-’는 ‘-두-’와 ‘-시-’ 사이에 쓰여야 하는데 ‘-두-’와의 음운 관계상 생략되었다고 본다. 이것은 뒤에서 논의하게 될 ‘-아시-’와의 관계에서 그 위치는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12)에서 ‘-아둠(두)서’의 선행 요소는 ‘눅다, 사다(서다), 곱다(숨다)’ 등 동작 동사이다. 선행 요소에 선택 제약이 있는 것은 선어말어미 ‘-두-’와 공기하기 때문이다. 즉 상태 동사와는 공기하지 못하는데, ‘두다’가 동작성 동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동사 ‘두다’는 보유나 상태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제주 방언의 특이 형태인 ‘-아둠서’는 ‘-아 있으면서’로 해석이 가능한데 ‘-둠-’에는 현재 진행의 의미가, ‘-두-’에는 완료의 의미가 있다. 선어말어미 ‘-두-’는 동사 ‘두다’에서 문법화되었는데, ‘두다’의 의미에 ‘시다’의 의미가 더해졌다. ‘-두-’는 ‘놓아 두다’는 의미보다는 동작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며 의미는 ‘있다’와 같다. 따라서 ‘-두-’와 ‘-시-’가 결합되어서 쓰이는 것은 그 의미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13) 밥 하영 먹어 두라. (밥을 많이 먹어 두어라.)

(13)에서 ‘두다’는 보조동사로 기능하고 있다. ‘두다’에는 ‘미리 먹을 수 있을 때에 먹어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두다’는 보조동사, 선

어말어미로 문법화되었다. 이것은 '시다'의 문법화 과정과 유사하다. 제주 방언에서만 이 '두다'가 선어말어미의 기능이 있다. 중앙어에서 '두다'는 보유의 보조동사이며 선어말어미의 기능은 없다.

연결어미 '-아서'의 기능은 중앙어와 별로 다르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았다. 연결어미 '-명서'도 쓰임이 활발하지 않다. 오히려 연결어미 '-명'이 빈번히 쓰인다. 간혹 보조사 '도'와 결합한 '-명서도'가 쓰인다.

“말은 경 허명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문장을 보자. 여기서 '허명서도'는 '하고 있으면서'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서'에도 '시다'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연결어미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어서 논의로 하겠다.

2. 선어말어미로서 '-시-'의 문법 기능

선어말어미 '-아시', '-암시'는 연결어미,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쓰이는 제주 방언의 어미 형태이다. 따라서 相과 결합된 '-시-'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1) 연결어미와 결합한 경우

(14) 가. 자의 무시거 빌레 오라시니 ㅅ레 보라.

(저 아이가 무엇을 빌리러 왔는지 알아 보라.)

나. 가의 집의서 놀아시난 걱정 말라.

(그 아이 집에서 놀았으니까 걱정 말라.)

다. 아시가 죽게 됴염시난 혼번 가 보저.

(아우가 죽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 보겠다.)

라. 오래 살암시난 배롱흔 날도 신계.

(오래 살고 있으니까 좋은 날도 있다.)

(14가)에서 '오라시니'는 '오-아-시-니'로 분석이 되는데 여기서 '-아

-'는 완료의 相 선어말어미이며, '-시-'는 존재(상태 지속)의 의미인 동사 '시다'에서 문법화되었다. (14나)에서 '놀아시난'은 '놀-아-시-난'으로 분석된다. '-아시-'는 중앙어 '-아 있다'에 해당하며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았-'으로도 해석되지만 그 의미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14다)에서 '뒹엿시난'은 중앙어 '되고/어 있으니까'로 해석된다. 즉 '뒹-엿-시-난'에서 '-암시'는 '-고 있다' 정도로 해석된다. 선어말어미 '-암시-'는 현재 진행의 문법 기능이 있다. 물론 중앙어로서의 해석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개 '-암시-'를 '-고 있다'로 해석할 수 있다. (14라)에서 '살암시난'에서 '-암시-'는 '-고 있다'의 의미이며 여기서도 '-시-'에는 보조동사 '있다'의 기능이 있다. 연결어미 '-난'은 중앙어 '-니까'에 해당한다. 물론 '암-시'를 분리해 볼 때 선어말어미 '-시-'에 '시다'의 의미가 내포됨을 알 수 있다.

(14)에서 선어말어미 '-암시-', '-아시-'에 연결어미 '-니, -난'이 결합되었다. 예문 (12)에서는 '-시'의 형태가 직접 드러나지 않고 보조적 연결어미와 결합된 '-서'의 형태로 쓰였는데, 예문 (14)를 보면 어미 형태에는 '-시-'가 직접 드러나 있다. 이것은 본동사로 쓰이는 '시다'가 相 형태인 '-암-', '-아-'와 결합해서 그 의미와 통사 관계를 원활히 해 준다. 따라서 제주 방언의 선어말어미 '-시-'는 동사 '시다'에서 문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시-'와 '-암시-'는 단일 형태소가 아니고 '-시-'를 분리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시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종립 1993에서는 이를 분리하지 않고 단일 형태소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선어말어미 '-암시-', '-아시-'의 통사 특성상 선행 요소는 '오다, 놀다, 되다, 살다' 등의 동작 동사와 호응한다. 이것은 선어말어미 '-암시-', '-아시-'는 '암-시', '아-시'로 분리가 가능하며 이 때의 '-시-'는 중앙어 보조동사인 '있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앙어에서는 동사 '있다'가 보조동사로 문법화되어서 준자립성이 있는데 비해서 제주 방언에서는 어미화해서 형태상 보조동사의 기능은 없는데 의미에는 그 기능이 남아 있다.

2) 종결어미와 결합한 경우

(15) 가. 가윈 줌이 무충ㅎ게 들어서라.

(그 아이는 잠이 깊게 들어 있더라.)

나. 아윈 마당에 누엿 핑핑 등굴멍 올업서.

(아이는 마당에 누워서 핑핑 등글면서 울고 있다.)

(15가)를 보면 서술어는 '잠이 들어 있는 상태'로 동작이 완료됨을 의미한다. '들-아-시-어-라'에서 선어말어미 '-아-'는 과거완료인 相 형태이며, 선어말어미 '-시-'는 동사 '시다'에 기원을 두고 있다. 뒤의 '-어-'는 과거회상 '-더-'의 이형태이다. 따라서 '-아시-'는 과거시제 형태소 '-았-'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완료의 문법 기능이 있다. '-시-'에는 보조동사 '있다'의 의미 기능이 있다.

(15나)에서 '올업서'는 행위자의 우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올-암-시-어'로 분석해 보면 선어말어미 '-시-'는 보조동사 '있다'의 기능이 있으며, '-암-'에는 현재 진행의 기능이 있다.

(16) 가. 뵤름이 불젠 험시냐? (바람이 불려고 하는가?)

나. 학교서 놀아시냐? (학교에서 놀았느냐?)

다. 어멍 밥 먹업서냐? (어머니가 밥 먹고 있더냐?)

(16가)에서 '험시냐'를 분석하면 'ㅎ-암-시-냐'인데, '하고 있느냐?'로 해석이 된다. 선어말어미 '-암시-'는 중앙어 '-고 있다'에 해당한다. (16나)를 보면 '놀-아-시-냐'에서 '-아시-'는 완료 '-어 있다'에 해당한다.

(16다)에서 서술어 '먹업서냐'를 분석하면 '먹-엄-시-어-냐'가 된다. 즉 '밥을 먹는 동작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시-'에는 보조동사 '있다'의 의미가 있고, 선어말어미 '-어-'는 과거회상 '-더-'의

이형태이다.

(16)에서 선어말어미 ‘-시-’는 ‘있다’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료든 진행이든 ‘相’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양어 ‘-아 있다’, ‘-고 있다’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 방언 선어말어미 ‘-아시-’에서 ‘-아-’에는 완료, ‘-암-’에서 ‘-ㅁ-’에는 현재 진행의 기능이 있다. 따라서 “보조적 연결어미 아+ㅁ(진행)+시→암시”가 되었고, “∅(아, 보조적 연결어미) +아(완료)+시→아시”로 본다면 (12나, 다)에서 완료 선어말어미 ‘-아-’의 생략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어말어미 ‘-암시’, ‘-아시-’에서 ‘-시-’는 원래 여간 형태소 ‘이시/시-’이며, 이 ‘시-’가 문법 형태에 녹아 들어 온 뒤에도 제주 방언에는 그 본래의 특성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보았다.

보조동사의 기능을 좀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가. 집의 가시라. (집에 가 있어라.)

나. 나가 돈을 내시쿠다. (내가 돈을 내어 있겠습니다.)

(17가)에서 ‘가시라’는 ‘가-아-시-아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중양어처럼 ‘가라’로는 해석이 안 된다. 이것은 보조동사의 기능이 있는 ‘시-’가 쓰였기 때문이다. (17나)에서 ‘내시쿠다’는 ‘내-시-(으)크-우-다’로 분석이 가능하다. 중양어처럼 ‘대신 내겠다’라는 의미보다는 현시점에서 ‘내가 일단 대신 내 줄 테니까 나중에 갚으라.’는 의미가 강하다. 여기서 ‘-시-’는 ‘있다’라는 보조동사로 쓰이고 있다. ‘-(으)크-’는 제주 방언의 의도형 선어말어미이다.

(17)에서 중양어로의 해석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에는 ‘있다’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서 선어말어미 ‘-시-’는 의미면에서 보조동사이지만 문법 기능면에서는 선어말어미로 굳어졌다.

중세 국어에서 동사 '잇-'이 어미와 결합하여 '아/어# 잇-'에서 시제 형태소 '-았-/엇-'으로 굳어져서 단순히 시제 형태소로만 쓰이고 있다. 과거시제 형태소 '-았-/엇-'으로 융합되기 이전에 '이시/시-'의 의미가 제주 방언에는 남아 있다. 중앙어에서는 이들이 융합되면서 선어말어미로 문법화되었다. 제주 방언에서는 선어말어미로 문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형에서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방언 연구가 현재 중앙어의 모습을 구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제주 방언에서는 상 형태소인 '-암-', '-아-'와 결합해서 相 형태로 굳어졌지만, '시다' 자체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어에서 보조동사로 쓰이는 '있다'와 문법 기능면에서는 동일하다.

중앙어에는 보조동사로 '있다'가 쓰이는데 제주 방언에서는 대체 가능한 보조동사의 형태가 없는 것은 선어말어미 '-암-', '-아-'와 결합한 '-시-'가 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어말어미 '-암시-', '-아시-'에서 선어말어미 '-시-'가 기원적으로 '시다'에서 왔지만 문법화되어 상 범주의 한 의미 자질로 녹아들면서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의미는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가. 할망은 나이가 혼 구십되어실로구나.

(할머니는 나이가 한 구십되었겠구나.)

나. 아덜은 밥 먹어실로구나. (아들은 밥 먹었겠구나.)

(18)은 앞에서 논의한 '-시-'의 기능과는 좀다르게 쓰인다. 여기서 '-시-'는 중앙어 '-겠-'에 해당하며 추측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물론 감탄형어미 '-르로구나'와만 결합할 때이다. 그렇다면 '되-아-시-르로구나', '떡-아-시-르로구나'에서 '-아-'는 완료의 상 형태이며 선어말어미 '-시-'가 '시다'의 의미보다는 추측의 선어말어미로 쓰인다. 이 추측의 문법 기능 역시 중앙어와는 다른 점이다. 이를 굳이 중앙어로 해석해보면 '구십되어 있겠구나', '먹어 있겠구나'가 된다 따라서 이때의 '-시-'

역시 원래 의미는 '있다'에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앞에서 명사구에 결합되는 '서'와 동사구에 쓰이는 '-시-'의 의미·통사 기능을 살펴보고, 동일 기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명사구에 결합하는 '에서'는 기본적으로 처소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았으며, '에서'의 선행 요소는 처소 명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서'가 나타내는 단체 주격, 출발격, 처소(소재)격 기능 중에서 '에서'의 고유한 기능에 근접해 있는 것은 처소(소재)격표지라고 생각된다. '디서'는 [+장소]와 시간을 두고 머물러 있는 체류의 의미 기능을 지닌다. 처소의 '디'에 형태소 '서'가 융합된 '디서'는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발생하는 공간적인 장소와 존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단어처럼 그 의미가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NP에+서'의 형식에서 '서'는 '존재'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서'는 '시-어'로 재분석할 수 있다. 물론 '에'와 '에서'가 처소의 문법 기능이 있지만 그 의미·통사 특성에 차이가 있다. '에'가 향진(출발)이나 도착의 의미 기능이 있을 때에는 주로 이동 동사와 공기하고, 원인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비이동 동사와 공기한다. '에서'는 주로 비이동 동사와 공기한다. 인수사 뒤의 '서'는 그 인수사를 묶어서 그 상태로 있을 것을 지속시켜 준다.

다음으로 동사구를 중심으로 해서 '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중앙어 '-아 있다', '-고 있다'에 해당하는 제주 방언 相 형태에는 '-암시-', '-아시-'가 있다. 여기서 선어말어미 '-시-'가 '-암-', '-아-'인 相과 결합하여서 선행 요소가 진행 또는 완료되어서 지속됨을 나타낸다. 이때 '-시-'가 있어서 상태 지속의 의미가 더 보태어진 것이다. 중앙어인 경우 '있다'에 보조동사의 문법 기능이 있지만 제주 방언에서는 보조동사의 기능은 없고, 선어말 어미 '-암-', '-아-'와 결합되어서 단일 형태소처럼 굳어졌다. 중앙어에서는 '있다'가 본동사, 보조동사로 쓰이고 있지만 제

주 방언인 경우 '이시다', '시다' 형에는 본동사의 주 기능이 있으며, 相과 결합되어서 선어말어미로 문법화되었다. 동사 '있다'의 고어인 '이시다', '시다'가 제주 방언에서는 선어말어미로 문법화되었으나 '존재(상태 지속)'의 의미는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어말어미 '-시-'의 분리가 가능하다. 동사 '두다'도 '시다'와 마찬가지로 제주 방언에서는 선어말어미의 기능이 있음을 보았다. 이는 중앙어와 다른 점이다.

동사구에 붙는 '시-'의 기원을 '시다', '이시다'에 둔다면, 동사구와 결합한 형태소 '시-'는 '존재'의 의미가 약화되면서 상태 지속의 의미로 변의되었다고 본다. 선어말어미로 쓰인 경우 '진행'과 '완료'라는 相과 결합되어서 쓰이는 '-시-'에는 본래 동사의 의미가 남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시-'가 단독 형태소로 쓰이든, 변이되었든, 상과 결합되었든 그 기원은 동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N(에)+서', 'V(아)+서'에서 '-서'의 기원은 '시다'로 동일하지만 현대 중앙어로 내려오면서 선택 환경이 달라지고 부차적인 의미도 달라졌다고 본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는 '이시다, 잇다'와 '시다, 싯다' 형이 공존하는데, '有, 在'의 의미로 쓰이는 '시다'를 '서와 '시-'의 동일 기원으로 본다.

<참고문헌>

- 강정희(1980), "제주방언의 처격 '-디'에 관한 일고찰", 「방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진수(1992), "'-서'의 의미(1): 명사구 뒤의 환경에서", 「언어연구」 8호 언어연구회.
 문순덕(1988), "제주도방언의 형태소 '-서'에 관한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안명철(1985), "보조조사 '-서'의 의미", 「국어학」 14, 국어학회.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음론, 태학사.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홍종림(1993), 제주도방언의 양태와 상, 한신문화사.